마산 자유무역지역
출범 50주년 기념식(11.20.)

「자유무역지역(FTZ) 50주년」 재도약을 위한

K-FTZ 2030 혁신 전략(안)

2020. 11. 20.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추진 배경 ····· 1

Ⅱ. 현황 및 경쟁력 분석 ····· 2

1. 자유무역지역(FTZ) 현황 ····· 2

2. 자유무역지역(FTZ) 주요 성과 ····· 3

3. 자유무역지역(FTZ) 성장 정체 요인 ····· 4

4. 성장 잠재력(위기이자 기회) ····· 8

Ⅲ. 비전 및 추진 전략 ····· 9

Ⅳ. 추진 전략 ····· 10

1. 고용창출 및 지역 경제를 선도한 혁신 생태계 조성 ····· 10

2. FTZ 제도 개편을 통한 성장 지원체계 구축 ····· 17

3. 성과 중심의 맞춤형 수출·혁신 인프라 구축 지원 ····· 23

Ⅴ. 향후 계획 ····· 28

Ⅰ. 추진 배경

◇ 자유무역지역(FTZ)은 수출 전진기지로 도입,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

○ 1970년에 도입된 자유무역지역(舊, 수출자유지역)은 수출주도 경제성장 과정에서 **수출 확대, 외투 유치** 등을 통해 우리 **경제발전에 기여**

* ('70→'19년, 백만불, 명) : 수출 3,195배 성장 (0.8→2,556), 외투(누적) 464배 성장 (5→2,322), 고용 24배 성장 (1,248→30,029)

◇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한 자유무역지역 역동성 약화

○ 글로벌화·FTA 확산, 투자위축 등 대내외 여건 변화로 인한 **관세 유보의 실효성 저하** 및 **투자 이점 감소**로 **수출거점으로의 역할 약화**

* (환경변화) 코로나19 발 글로벌 경제위기, FTA 확산, 新보호무역주의, 자국회귀 등

○ **제도 개편***에도 불구하고 **단순 제조·물류 중심 운영, 외투·관세 위주 지원** 등 **기존 제도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환경변화 대응에 한계

* 수출자유지역 도입('70) → 자유무역지역으로 개편('00) → 관세자유지역 통합·확대('04)

◇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 자유무역지역 기능·역할 재정립 필요

○ 세계 경제특구는 제조업의 **수출가공**에서 **지역 거점산업 연계**를 통한 **대규모·다기능화** 등 **기능 재정립**을 통해 혁신적인 성과 실현중

* 예) 중국 : **(기존)** 보세구 ⇒ **(도입)** 자유무역시범구 (보세구 + 시장경제, 금융혁신 기능, 상품·서비스 무역 자유화, '13.9월)

○ **혁신성장**과 **지속 가능한 수출구조 혁신을 이끌어가는 지역 수출거점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 기능 및 역할의 재정립 필요

◈ **혁신적인 수출 성장동력 확보**와 **지역 거점산업 투자연계**를 통한 **자유무역지역 역동성 강화**를 위한 **「K-FTZ 2030 혁신 전략」 마련**

Ⅱ. 현황 및 경쟁력 분석

1 자유무역지역(FTZ) 현황

□ **(개념·목적)** 수출·물류 확대, 외투 유치 등을 위해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무역활동을 보장하는 지역**

* 국내에 위치하지만 법적으로 관세영역외의 지역으로 관세법 등의 적용에서 예외 인정

※ **(지원혜택)** 관세유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저렴한 임대료(공시지가의 1% 수준), 외투기업에 대한 지방세·임대료 감면 등

□ **(지정현황)** 13개 지정·운영(면적 34.7㎢, 여의도 면적의 11.8배)

※ **(관리·운영)** 자유무역지역 지정, 정책·제도·법 등 **총괄은 산업부**, **관리는** 유형별로 **3개 부처(산업부, 해수부, 국토부) 담당**

< 자유무역지역 지정 현황('20.6월 기준) >

구 분		지정일	면 적	관리권자
산단형 (5.8㎢)	마 산	'70. 1. 1	0.96㎢	산업부 (자유무역지역 관리원)
	군 산	'00.10. 6	1.26㎢	
	대 불	'02.11.21	1.16㎢	
	동 해	'05.12.12	0.25㎢	
	율 촌	'05.12.12	0.34㎢	
	울 산	'08.12. 8	0.82㎢	
	김 제	'09. 1. 6	0.99㎢	
항만형 (25.6㎢)	부 산 항	'02. 1. 1	12.2㎢	해수부 (해수청/항만공사)
	광 양 항	'02. 1. 1	9.05㎢	
	인 천 항	'03. 1. 1	1.96㎢	
	포 항 항	'08.12. 8	0.93㎢	
	평택당진항	'09. 3.30	1.43㎢	
공항형 (3.4㎢)	인 천 공 항	'05. 4. 6	3.37㎢	국토부 (항공청/공항공사)
합 계			34.72㎢	



□ **(입주현황)** 자유무역지역 부지, 표준공장(임대건물)에 **국내·외투기업 1,101개社 입주**, 입주율은 86.5% ('20.6월 기준)

<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현황('20.6월 기준, 단위 : 개社) >

구 분	전 체	산단형	항만형	공항형
입주율(%)	**86.5**	86.4	86.3	92.2
입주기업(외투, 비중)	**1,101 (305, 27.7%)**	289 (164, 56.7%)	145 (105, 72.4%)	667 (36, 5.4%)

2 자유무역지역(FTZ) 주요 성과

□ **(수출)** '70년 제도 도입 이후 '90년대까지 **전체 수출의 2~4%를 차지**하며 **우리나라 수출 1,000억불 달성에 기여**

○ FTA 확산, 글로벌 경제위기, 생산비용 인상을 동반한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00년 이후 수출 실적 감소** ('19년 전체 수출의 0.5%)

< 자유무역지역 수출 추이 >

연 도	1977년	1981년	1995년	2019년
우리나라 수출	100억불	212억불	1,250억불	5,424억불
FTZ 수출(억불, 비중)	3.6 (3.6%)	6.9 (3.3%)	24 (1.9%)	25.6 (0.5%)

□ **(외투)** '13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FDI의 3% 수준**을 유지하며 외국인 투자 유치 관련 **국가 신인도 제고에 기여**

○ '16년 이후 글로벌 FDI 감소 추세와 맥락을 같이 하며 **외투 유치 실적도 하락** ('19년 까지(누적), FTZ 외투는 21.9억$로 전체 2,228.5억$의 1.0%)

< 자유무역지역 외투 추이(도착) >

연 도	2010년	2013년	2016년	2019년
우리나라 외투	54.4억불	98.4억불	106.7억불	128.9억불
FTZ 외투(백만불, 비중)	47.2 (0.9%)	299.7 (3.0%)	295.1 (2.8%)	195.2 (1.5%)

□ **(고용)** '19년 기준, **총 3만명 고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19년 기준 : 총고용 30,029명(산단형 10,098명, 공항·항만형 19,931명)

○ 기술집약, 자동화 등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90년대 이후 입주기업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지속 감소**

< 산단형 자유무역지역 고용 추이 >

연 도	1975년	1990년	2005년	2015년	2019년
FTZ 입주기업	105개사	72개사	74개사	214개사	278개사
FTZ 고용(명)	22,586	19,616	8,665	10,873	10,098

⇨ **(시사점) 2000년대 초반까지 국가·지역 경제를 견인, 최근 역동성 저하로 자유무역지역(FTZ) 재도약을 위한 생태계 혁신 방안 마련 시급**

3 자유무역지역(FTZ) 성장 정체 요인

가. 혁신 생태계 측면

1 **(지역 거점산업 연계 미흡)** 중소·중견의 전통 제조·물류업체 중심 입주, 지역경제를 선도할 **거점 핵심산업 유치 미흡***

* FTZ 입주기업('19년, 1,111社) 중 첨단(and 유턴) 기업 전무(외투기업 295社)

○ **(지역주력산업)** 입주율 향상에 치중함에 따라, FTZ 기업이 **지역별 주력산업과 연계없이 입주**하면서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 저하**

< 자유무역지역 지역별 주력산업 매칭 분석 >

FTZ		FTZ 주요업종		지역별 주력산업*
산단형	군산	의료용 제조, 금속, 자동차, 발전·연료		**(전북)** 농생명소재·식품, 지능형기계부품, 해양설비기자재, 탄소복합소재
	김제	금속, 화학, 전기전자, 운송장비, 섬유, 고무/플라스틱, 기계		
	동해	의약외품/위생, 화장품, 내연기관, 수산가공, 과실 및 채소 절임식품, 차(茶)		**(강원)** 웰니스식품, 세라믹복합신소재, 레저 휴양지식서비스
	울산	자동차, 금속, 산업용로봇, 기계, 장비		**(울산)** 자동차, 친환경자동차부품, 조선해양, 친환경에너지, 첨단화학신소재
	마산	정밀기기, 전기전자, 기계, 금속, 비금속, 섬유봉제		**(경남)** 항노화바이오, 지능형기계, 나노융합부품, 항공
	대불	선박, 자동차, 금속, 수산가공	⇔	
	율촌	석유화학, 섬유봉제, 기계, 전기전자, 철강, 의료기기, 운송장비		**(전남)** 바이오헬스케어소재, 첨단운송기기부품, 에너지신산업, 청색·청정환경산업
항만형	광양항	철강, 석유화학, 물류		
	부산항	물류업, 항만관련산업		**(부산)** 바이오메디컬, 지능정보서비스, 지능형기계부품, 클린에너지
	포항항	철강, 유류, 물류		**(경북)** 바이오뷰티, 기능성섬유, 지능형디지털기기, 하이테크성형가공
	평택당진항	자동차, 잡화, 양곡, 제철		**(경기)** 첨단산업, 자동차
	인천항	전기전자부품, 의약 및 화학제품, 의료		**(인천)** 항공, 첨단자동차, 로봇, 바이오, 관광, 뷰티, 물류, 녹색기후금융
공항형	인천공항	광학정밀기기, 기계부품, 물류업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시·도별 지역특화(주력)산업 48개 선정·육성중(중기부)

○ **(기업규모)** 입주기업 중 **중소·중견기업 비중이 98.0%**로 지역경제 혁신을 이끌어갈 **앵커기업 부재**

< 자유무역지역 기업유형 현황('19년 기준) >

전체 (단위 : 개사)	산단형 FTZ	항만·공항형 FTZ
1,111 (대 22, 중소·중견 1,089)	**278** (대 5, 중소·중견 273)	**833** (대 17, 중소·중견 816)

○ **(기술산업)** 입주기업 주력제품 중 **고기술산업 제품은 10.6% 수준**으로 **주력제품의 기술 고도화 및 부가가치 창출 미흡**

< 자유무역지역 기술산업 현황('19년 기준) >

구 분	고기술산업	중·고기술산업	중·저기술산업	저기술산업
FTZ제품(275개)	**10.6%** (29개)	**49.1%** (135개)	**36.7%** (101개)	**3.6%** (10개)
※ OECD 분류기준	항공우주, 의학 등	전기기계, 자동차 등	석유정재, 금속 등	섬유, 펄프, 종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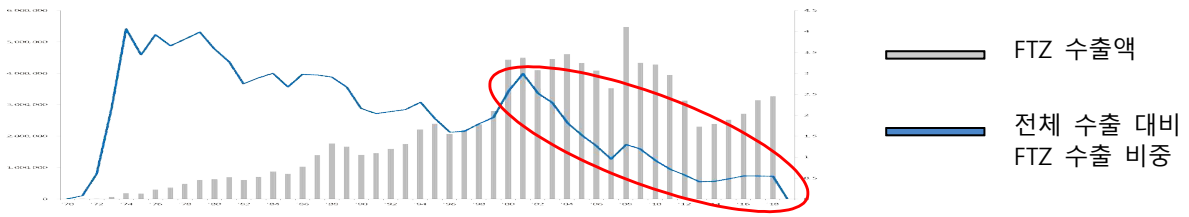
2 **(수출·혁신역량 부재)**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환경**(新보호무역주의, 4차 산업혁명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수출 및 혁신 역량 부재**

○ **(수출역량)** **'00년대 초반 3%에 이르던 수출 비중**이 점차 감소하여 **'19년에는 0.5%까지 하락**하는 등 **수출거점으로 차별화 부족**

- **FTZ 입주기업 평균 수출액***이 우리나라 **수출기업 평균 수출액보다 낮은 수준**으로 FTZ 입주기업의 **수출역량 미흡**

* FTZ 평균 수출액 : 2.3백만$ / 수출기업 평균 수출액 : 5.6백만$ (통계청, '19년 무역 통계)

< 자유무역지역 수출 비중 >



○ **(혁신역량)** **연구전담조직 보유 기업***은 산단형 FTZ 입주기업의 **40.3% 수준** ('19년, 278개社중 112개社)으로 **R&D 혁신역량 미흡**

* 중소기업 R&D전담조직 보유 비중 60.2%(중기부, '19년 중기기술통계조사)

⇨ **(시사점) ❶지역 주력산업 연계를 통한 경쟁력 확보 및 ❷FTZ 입주기업의 수출·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 생태계 구축 필요**

나. 제도 운영 측면

1 **(역할전환 미흡) 제조·물류 융복합 기능 연계**를 위한 제도 마련에도 불구, **업종 간** 시너지 창출을 통한 **역할 전환이 미흡**

○ **(제도도입)** 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 '70년에 도입된 **'수출자유무역'을 제조에 물류·무역 기능을 복합**한 **'자유무역지역'으로 개편**

* 수출자유지역 도입('70) → 자유무역지역 개편('00) → 관세자유지역 통합·확대('04)

○ **(업종편중) 산단형은 제조**(99.3%), **항만·공항형은 단순 물류**(98.1%)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 취지와 달리 **상호 연계 미흡**

< 자유무역지역 업종유형 현황('19년 기준) >

전체 (단위 : 개사)	산단형 FTZ	항만·공항형 FTZ
1,111 (제조 292, 물류 819)	**278** (**제조 276**, 물류 2)	**833** (제조 16, **물류 817**)

2 **(관리체계 미비)** 복잡한 거버넌스로 인한 **종합적·체계적인 정책 수행의 어려움 및 관리기관의 기업지원 역할 미흡**

○ **(총괄조정기능) 자유무역지역 관리구조가 3개 부처로 다원화***되어 있어, 부처 간 공식적인 **정책협의 및 조정 채널 부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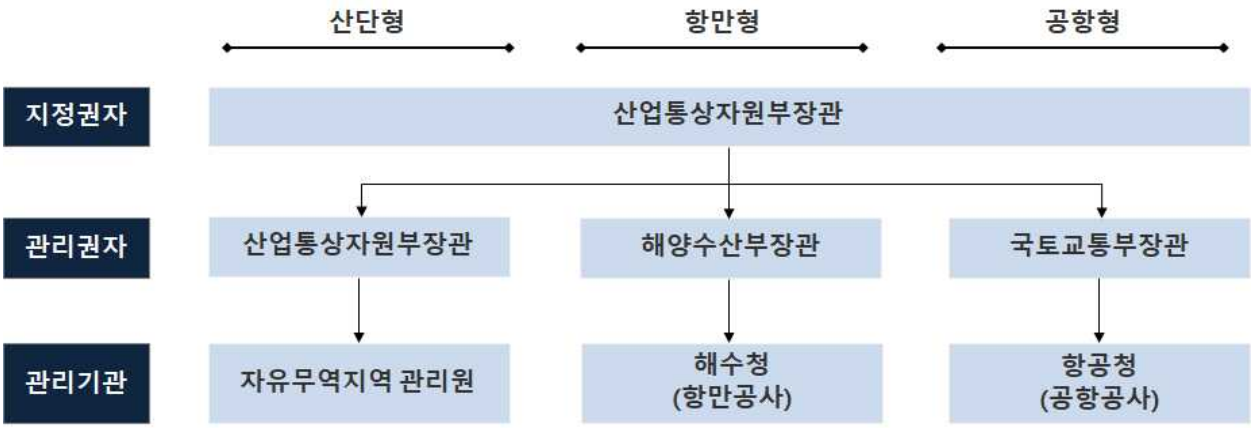
* **(총괄)** 자유무역지역 지정·법 등 산업부 담당, **(관리)** 산단형은 산업부(FTZ 관리원), 항만형은 해수부(해수청 & 항만공사), 공항형은 국토부(항공청 & 공항공사) 담당

- 자유무역지역 관련 3개 관리부처 간에 **적시성 있는 정책 추진과 일관성이 부족**하고 긴밀한 **연계·협력이 곤란**

○ **(현장조직운영)** 자유무역지역을 관리하는 **13개 관리기관**은 지정권자인 **산업부**(경자단)**와 업무협력이 부족**하고 **효율성도 낮음**

- 산단형 FTZ 관리기관의 경우, **기반조성 및 시설 관리**(임대료 징수) 중심으로 운영, **기업지원 기능**(수출 지원, 투자 유치 등) **역할 미흡**

< 자유무역지역 운영 체계 >



3 (인센티브 · 규제완화 미흡) 외투기업 중심의 인센티브 구성, 입주 자격 제한 등의 규제 잔존으로 경쟁력있는 우수기업 유인 미흡

○ **(입지지원) 저렴한 임대료**(공시지가의 1%, 인근 임대료의 15~30% 수준) 이외 **입지 인센티브 부족, 임대료 추가 감면은 외투기업에 한정***

* 업종과 투자규모에 따라, 토지 및 공장 무상임대(또는 75% 감면) 10년간 제공

○ **(세제지원) 관세유보*** **이외에 국내기업 지원 미흡**(외투기업은 투자규모에 따라 취득·재산세 감면), FTA 확산으로 **관세유보 실효성 저하**

* FTZ 반입 수입물품에 관세 면제(단, 동 제품의 국내반입시 관세부과)

○ **(기업지원)** 해외마케팅, 시제품 제작, 컨설팅 등 **입주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이 시작되었으나 **효과적인 지원체계**는 **미구축**

* "자유무역지역(FTZ) 경쟁력 강화사업('19년 신규, 35억원, 보조사업)" 운영

○ **(잔존규제)** 자유무역지역 법령에 따라 **일부 업종**(농·축산물 제조·가공 업종 등)**의 입주자격 제한 등의 규제**가 잔존

* 예) 수산물 가공은 입주가 허용되고 있으나, 농·축산물(63개 양허품목) 제조·가공 업종은 관세 포탈 우려 등으로 입주제한 업종으로 분류

⇨ **(시사점) ❶FTZ 거버넌스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체계 구축 및 ❷경쟁력 있는 우수 유망기업 유인을 위한 FTZ 제도(인센티브)·규제 개선 필요**

4 성장 잠재력 (위기이자 기회)

□ **(위기)** 코로나19 쇼크에 따른 **글로벌 경제위기***, **산업판도 급변**(자국 우선주의, 글로벌 공급망 약화), **미·중 新냉전****(Great Decoupling) 등 위협

* WTO는 코로나19로 인해 '20년 세계교역규모가 최대 32%까지 감소 전망

** 미국은 자국중심 경제번영네트워크(EPN : Economic Prosperity network) 구축 추진

○ **(투자 감소) 경제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글로벌투자 감소*** 전망

* UNCTAD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글로벌 FDI가 30~40% 감소 전망

□ **(강점 및 기회)** 튼튼한 **제조 경쟁력·디지털 인프라** 강점, **K-방역**을 통한 **안전·투명한 국가** 이미지 ⇒ **외투·유턴·첨단산업 유치** 기회

○ **(뉴노멀**(비대면) **부상)** 코로나19 확산 → **非대면·디지털 경제 확산**

- 비대면경제의 기반인 **반도체, 데이터, 5G,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인프라 및 첨단제품**에 대한 **세계적 투자 및 수요 확대** 전망

⇒ FTZ **지역별 주력산업과 연계***한 **디지털·첨단산업 유치** 기회

* (마산) 지능형·디지털산업, (울산) 친환경자동차, (대불) 에너지신산업 등

○ **(GVC 재편)** 글로벌 공급망(GVC) 불안정 → **공급망, 로컬 중심 변화**

- 美·中 **무역분쟁, 신흥국**(中·베트남) **방역 불투명성**에 따라 **공급망 리스크 가중**되는 가운데 **리쇼어링**(자국) 및 **니어쇼어링**(역내) **가속화**

○ **(K-방역·K-서비스 인프라)** 세계 최고수준 **제조업 기반에 K-서비스·디지털인프라** 바탕, **K-방역**으로 구축된 **청정 생산기지로서의 강점**

⇒ **기술력+투명성 겸비**한 한국(FTZ)**은 글로벌 첨단·유턴 생산기지化 기회**

➪ **(시사점) K-방역**으로 구축된 **"Korea Premium" 이점** 활용, FTZ를 안전·투명한 **첨단 수출·투자 거점化 (외투 및 유턴·첨단산업 유치) 추진** 기회

※ "기업 유턴은 물론 첨단산업 투자 유치를 위한 과감한 전략 추진 필요" (VIP, 5.10일)

Ⅲ. 비전 및 추진 전략

비 전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수출·투자 거점으로 재도약 《 (수출) 100억불, (투자) 50억불(누적) 》
목 표 ('30년)	▪ FTZ 수출 : ('20) 25.6억불 ⇨ ('30) 100억불 ▪ FTZ 투자(누적) : ('20) 24.0억불 ⇨ ('30) 50억불 ▪ 입주업체수 : ('20) 1,101社 ⇨ ('30) 2,000社 ▪ 고용·일자리 : ('20) 29,972명 ⇨ ('30) 50,000명

추진 전략	세부 추진과제
Ⅰ. 지역경제를 선도할 혁신 생태계 조성	❶ FTZ를 지역 주력산업 핵심 거점화 ❷ 핵심 주력산업 유치를 위한 FTZ 인센티브 강화
Ⅱ. 제도 개편을 통한 성장 지원체계 구축	❶ FTZ 지원체계 정비·고도화 ❷ FTZ 규제 정비를 통한 경쟁력 강화
Ⅲ. 성과 중심의 수출·혁신 인프라 구축	❶ FTZ 인프라 등 성장 지원체계 조성 ❷ 입주기업 수출·혁신 역량 강화 지원

Ⅳ. 추진 전략

1 고용창출 및 지역 경제를 선도할 혁신 생태계 조성

◈ **지역 거점별 주력산업 유치를 위한 확고한 유치전략(❶명확한 타겟, ❷파격적인 인센티브, ❸합동 지원체계) 수립**

1-1 FTZ를 지역 주력산업 핵심 거점화

【 추진 방향 】

◈ **(추진원칙) ❶명확한 유치전략 및 타겟** 설정, **❷파격적인 투자 인센티브** 제공, **❸민관합동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투자유치 추진

① **(대상발굴) 투자유치 산업 및 업종 분석** 등을 토대로 **기업의향 타진(유턴 포함)** 등을 통한 대상기업 발굴

② **(인센티브·규제 개선) 세제 감면 및 현금(보조금) 우대 등** 추진, **입주자격 완화 및 임대료 감면** 등 인센티브·규제 개선

③ **(투자유치 지원체계) 민관합동「FTZ 투자유치 지원단」신설**, 정부·지자체·KOTRA·산단공 등 **합동 유치활동 강화**

1 지역경제를 선도할 주력산업 유치를 통한 FTZ 경쟁력 강화

❶ **(핵심 주력산업 연계·유치)** FTZ를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된「첨단 수출·투자유치 거점」으로 육성, 지역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첨단 수출·투자 중심 특화) 지역 주력산업 연계·유치, 차별화를 통한 첨단 수출·투자 거점 특구*로 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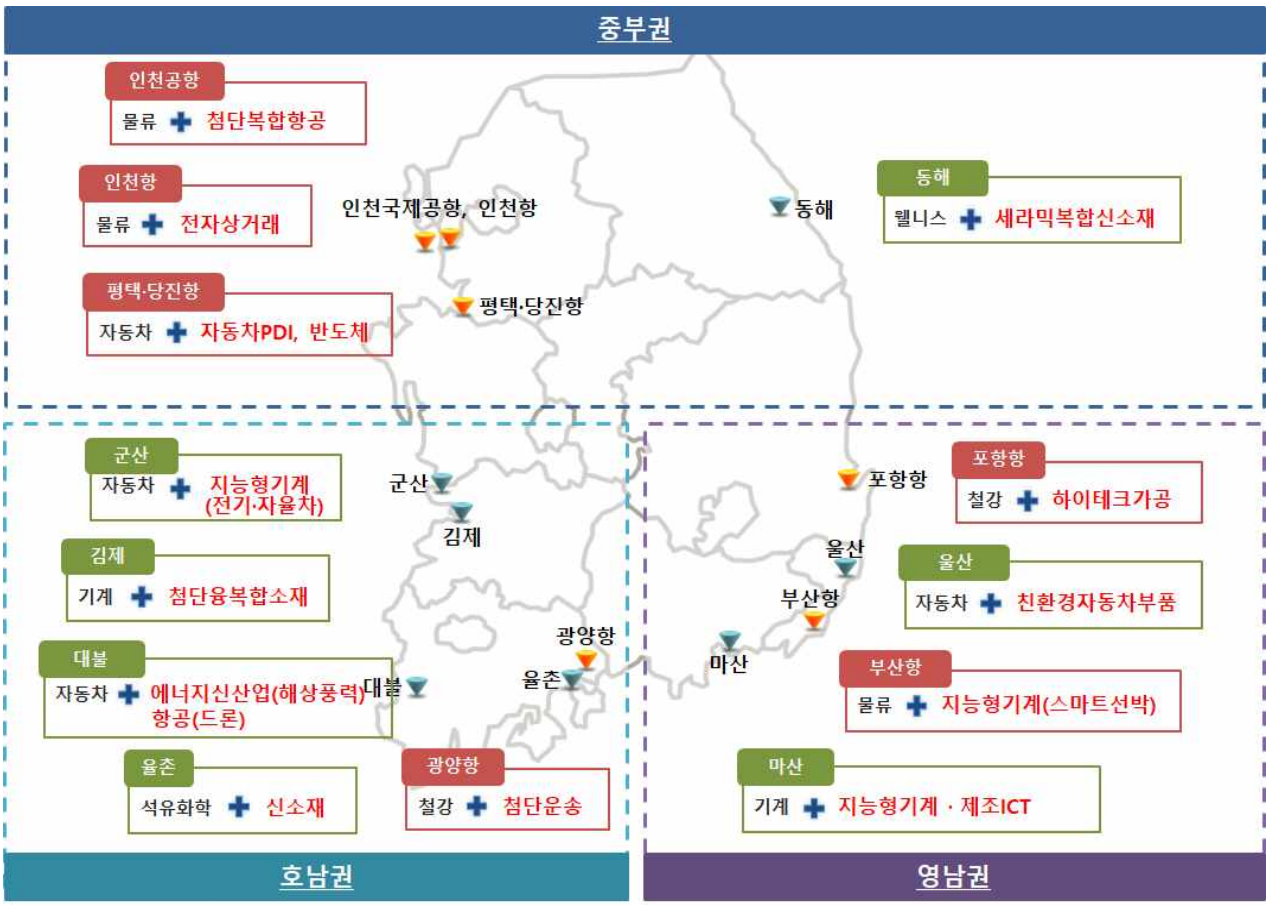
* (마산) 지능형기계, (울산) 친환경자동차, (강원·김제·율촌) 세라믹·탄소·신소재

- (제조·물류 융복합 특화) 공항·항만형 FTZ는 물품하역, 보관 위주에서 탈피, 중계·가공+제조·물류 융복합 중심 지역*으로 특화

* (인천) 항공·전자상거래, (부산항) 환적화물조립·가공, (평택·당진항) 자동차정비·검사(PDI) 등

< 자유무역지역(FTZ) 지역별 주력산업 연계(안) >

FTZ		現 FTZ 주요업종	지역 유망 주력산업	FTZ 주요업종 (+지역유망주력)
산단형	군산	의료용 제조, 금속, 자동차, 발전・연료	(전북) 지능형기계 (전기・자율차)	의료용 제조, 금속, 자동차, 발전・연료 + 지능형기계(전기・자율차)
	김제	금속, 화학, 전기전자, 운송장비, 섬유, 기계	(전북) 탄소 복합소재	금속, 화학, 전기전자, 운송장비, 섬유, 기계 + 첨단융복합소재
	동해	의약외품/위생, 화장품, 내연기관, 수산가공, 웰니스식품	(강원) 세라믹 복합신소재	의약외품/위생, 화장품, 내연기관, 수산가공, 웰니스식품 + 세라믹복합신소재
	울산	자동차, 금속, 산업용로봇,	(울산) 친환경 자동차부품	자동차, 산업용로봇 + 친환경자동차부품
	마산	정밀기기, 전기전자, 기계, 금속, 비금속	(경남) 지능형기계	정밀기기, 전기전자, 기계, 금속, 비금속 + 지능형기계(제조 ICT)
	대불	선박, 자동차, 금속, 수산가공	(전남) 에너지신산업 첨단운송기기	선박, 자동차(+튜닝), 금속, 수산가공 + 에너지신산업(해상풍력), 항공(드론)
	율촌	석유화학, 섬유봉제, 기계, 전기전자, 철강, 의료기기	(전남) 신소재	석유화학, 섬유봉제, 기계, 전기전자, 철강, 의료기기 + 신소재
항만형	광양항	철강, 석유화학	(전남) 첨단운송	철강, 석유화학 + 첨단운송
	부산항	물류업, 항만산업	(부산) 지능형기계 (스마트선박)	물류, 항만 + 지능형기계(스마트선박)
	평택 당진항	자동차, 잡화, 양곡, 제철	(경기) 반도체	자동차, 잡화, 양곡, 제철 + 자동차PDI, 반도체
	포항항	철강, 유류, 컨테이너	(경북) 하이텍가공	철강, 컨테이너 + 하이테크가공
	인천항	전기전자부품, 의료광학정밀기기, 의약 및 화학제품, 기계부품, 물류업	(인천) 항공, 전자상거래	전기전자부품, 의료광학정밀기기, 의약 및 화학제품, 기계부품, 물류업 + 첨단복합항공, 전자상거래
공항형	인천공항			



❷ **(핵심 주력산업 유치 부지 확보)** 핵심 주력산업의 입지수요 대응 및 입주공급 여건 등을 고려한 안정적인 부지 확보 추진*

* FTZ 확대 계획(안) : **('20) 34.7백만㎡ → ('25) 41.0백만㎡ → ('30) 49.7백만㎡**

< FTZ 부지 확대 계획(안) ('20.6월 기준) >

(단위 : 면적(천㎡) / 입주율(%))

구 분		2020년	2025년	2030년	구 분		2020년	2025년	2030년
산단형	군산	1,256 (91.4)	1,256	1,884	항만형	부산항	12,195 (78.3)	13,568	18,572
	마산	957 (96.1)	990	1,615		광양항	9,047 (92.9)	9,047	9,154
	대불	1,157 (97.8)	1,250	1,377		평택·당진	1,429 (100)	4,040	4,040
	울산	818 (98.2)	818	1,218		인천항	1,964 (100)	1,964	1,964
	김제	991 (58.5)	991	991		포항항	925 (79.0)	1,038	1,566
	율촌	343 (69.6)	512	598		**소계**	25,560 (86.3)	29,657	35,296
	동해	248 (64.8)	248	248	**공항형**	인천공항	3,375 (92.2)	5,265	6,465
	소계	5,770 (86.4)	6,065	7,931	**총 계**		**34,705 (86.5)**	**40,987**	**49,692**

※ 확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기재부, 국토부, 해수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추진

<(예시) 유치 대상 산업 및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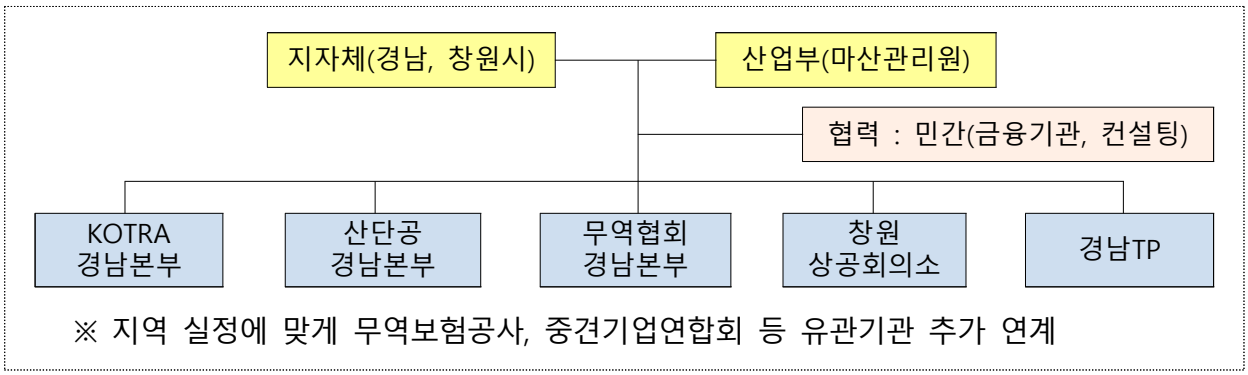
【 마산FTZ 】 지능형·디지털	【 군산FTZ 】 전기·자율차
	
▪ **(추진계획) 마산의 강점**인 **기계 및 전기전자산업**에 **핵심전략산업인 지능형기계·제조 ICT산업을 연계**하여 기업유치 추진	▪ **(추진계획)** 중국 등 전기차 부품의 해외 수요 증가 전망에 따라 **전기차 부품·소재 기업 유치**를 통한 **산업 집적화 추진**

2 지역 거점 주력산업 유치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❶ **(투자유치 지원체계 구축)** 유치기업 도출과 유치 지원을 위해 FTZ 지역별로 민관합동*「**FTZ 투자유치 지원단**」을 **신설·운영**

* 지자체 공동, 지역 투자유치 유관기관(KOTRA, 무역협회, 대한상의 등) + 민간(금융기관 등) 연계

< **(예시)** 마산 FTZ 투자유치 지원단 구성(안) >



※ 지역 실정에 맞게 무역보험공사, 중견기업연합회 등 유관기관 추가 연계

❷ **(유치 대상 산업·기업 발굴)** 지역(지역 FTZ + 지자체 합동) **주도**로 **중점연계 주력산업 선정** 후 **투자·유치 후보 기업군을 도출**

- **전략적 투자유치 산업 및 업종 분석** 등을 토대로 **기업의향 타진**(유턴 포함) 등을 통한 대상기업 발굴

- 각 관리원에서는 **본부와 공조**하여 **단계별·전략적 유치활동*** 추진

* 입주희망 기업 직접 방문, 입주 후 중점관리업체 선정 등 단계별 지원 추진

< 후보 기업군 도출 방안 >

유망산업 기업 추출		기업 선별		업종군별 리스트 작성
■ FTZ 개발 컨셉 ■ 지역별 주력산업	⇨	■ 기업 규모, 전후방 효과 ■ 경쟁력, 투자의사	⇨	■ 입주의향 ■ 실입주 유도

❸ **(투자유치·홍보 추진 다양화)** FTZ 전체가 참여하는 **투자유치 통합설명회 등** 홍보방법 다양화*로 홍보시너지 극대화 추진

* FTZ 통합 로고, 통합·개별 브로셔(국문, 영문), 동영상 등 제작 활용

1-2 핵심 주력산업 유치를 위한 FTZ 인센티브 강화

1 입주 인센티브 강화

○ **(입주자격 완화)** 지역주력산업 중 첨단기업*(이하 "지역첨단기업") 및 유턴기업에 대한 입주자격을 **외투기업 수준으로 완화**

* 제조업(반도체 등) 및 비제조업(인공지능 등) 33개 분야 기술·제품(산업발전법 제5조)

- **(지역첨단기업) 외투기업 수준**인 "3년간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30%**(중소기업 20%) **이상**"으로 완화

- **(유턴기업) 외투기업 수준**인 "3년간 총매출액 대비 **매출액**(한국으로의 수출액 제외) **비중 30%**(중소기업 20%) **이상**"으로 완화

< 입주자격 완화(안) >

현 행

구분	입주자격
외투기업	▸수출비중 30% 이상
지역 첨단기업	▸수출 비중 50% 이상 (중견 40%, 중소 30%)
유턴기업	▸매출 비중 50% 이상 (중견 40%, 중소 30%)

* (수출비중) 대기 50%, 중견 40%, 중기 30%

개 선(안)

구분	입주자격
외투기업	▸수출비중 30% 이상
지역 첨단기업	▸**수출 비중 30%** (중소기업 20%)
유턴기업	▸**매출 비중 30%** (중소기업 20%)

* (수출비중) 대기 50%, 중견 40%, 중기 30%

2 세제 및 현금(보조금) 인센티브 강화

※ 수도권은 세제 인센티브 및 현금(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❶ **(세제 인센티브 확대) 지역첨단기업 및 유턴기업**에 대해 **취득세·재산세 감면** 추진(지자체 조례로 도입)

< 세제 인센티브 확대(안) >

현 행	개 선(안)
(대상) 외투기업에 한정	**(대상)** 외투기업 **+ 지역첨단기업·유턴기업**
(내용)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 감면	**(내용)**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 감면

※ 경상남도 및 창원시 등 조례 개정을 통하여 우선 도입 추진('21)

❷ (현금(보조금) 지급 우대) 지역 유망 주력산업*에 투자하는 입주기업에 대해 현금(지방투자보조금) 지원 우대 비율(기본 + 10%p) 제공

* 지자체와 협력하여 FTZ 지역별 유망 주력산업을 지방투자보조금 우대 대상인 지역 특성화 업종에 포함(광역지자체 당 50개 운영 가능)

FTZ 지역별 유망 주력산업 연계(안)
(강원도) 세라믹복합신소재, **(전북)** 첨단융복합소재 등 **(전남)** 에너지신산업, 항공, 신소재, **(부산)** 스마트선박, **(울산)** 친환경자동차부품, **(경남)** 지능형기계(제조ICT), **(경북)** 하이테크가공 등

< 현금(보조금) 지급 우대(안) >

현 행

대상	지원내용
지방투자기업	(지원비율) 7~24% ※ 중소기업 기준 (지원한도) 기업당 100억원
유턴기업	(지원비율) 21~44% (지원한도) 기업당 600억원

※ 재원 : 지방투자기업(지방투자보조금), 유턴기업(유턴보조금)

개 선(안)

대상	지원내용
지방투자기업	(지원비율) ① (기본) 7~24% ② **(우대) 지역주력산업 17~34%** (기본+10%p) ※ 중소기업 기준 (지원한도) 기업당 100억원
유턴기업	(지원비율) 21~44% (지원한도) 기업당 600억원

<FTZ 인센티브 개편(안)>

구분	현 행				개 편(안)			
	입주자격 완화	세제감면		보조금 우대	입주자격 완화	세제감면		보조금 우대
		관세	취득·재산세			관세	취득·재산세	
수출기업	×	○	×	×	×	○	×	△
외투기업	○	○	○	×	○	○	○	△
지역 첨단기업	×	○	×	×	○	○	△	○
유턴기업	×	○	×	○	○	○	△	○

< FTZ 인센티브 개편 전후 비교(안) >

□ 기존 인센티브

구 분		인센티브 내용
입주자격		▸ (외투기업) 수출액 비중 30% 이상 ※ (원칙) 3년간 총매출액에서 수출액 비중 50% (중견기업 40%, 중소기업 30%) 이상
조세 감면	관세	▸ 관세유보
	지방세	▸ (외투기업) 최장 15년간 감면(지특법 및 각 지자체 조례) - 취득세, 재산세 등
현금(보조금) 우대		▸ (유턴기업) 입지·설비·이전비용의 21~44% (사업장당 300억, 기업당 600억)

□ 인센티브 개편(안)

구 분		인센티브 내용
입주자격		▸ (외투기업) 수출액 비중 30% 이상 ▸ (유턴기업) 매출액(한국으로 수출액 제외) 비중 30% (중소기업은 20%) 이상 ▸ (지역첨단기업) 수출액 비중 30% 이상 (중소기업은 20%) ※ (원칙) 3년간 총매출액에서 수출액 비중 50% (중견기업 40%, 중소기업 30%) 이상
조세 감면	관세	▸ 관세유보
	지방세	▸ (외투기업) 최장 15년간 감면(지특법 및 각 지자체 조례) - 취득세, 재산세 등 ▸ (지역첨단기업·유턴기업) 취득세·재산세 감면(지자체 조례)
현금(보조금) 우대		▸ (유턴기업) 입지·설비·이전비용의 21~44% (사업장당 300억, 기업당 600억) ▸ (지역주력산업) 입지·설비 투자액의 17~34% (기본 + 10%p)

2 FTZ 제도 개편을 통한 성장 지원체계 구축

◈ ❶FTZ 거버넌스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체계 구축 및 ❷FTZ 제도·규제 개선을 통한 FTZ 성장 지원체계 구축

2-1 FTZ 지원체계 정비·고도화

1 정기적 정책 협의 채널 구축으로 FTZ 정책 추진 효율성 제고

○ **(FTZ 협의회)** 부처(산업부-국토부-해수부 등) 간 FTZ 정책 추진의 긴밀한 연계·협력을 위한 「FTZ 협의회」 신설·운영

- **(FTZ 정책 협의회) 산업부 차관 주재**, 관련 부처 및 시·도 실·국장 등의 참여하에 **주요 정책 사항*** **협의·조정** (반기별 개최 원칙)

* (정책 사항) ①FTZ 기본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②FTZ 지정, 변경, 해제에 관한 사항, ③FTZ 관련 부처 및 지자체의 협조·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등

- **(FTZ 실무 협의회) 산업부 경자단장 주재**, 관계 부처 및 지자체 과장, FTZ 관리기관장 등이 참여하여 실무 사항 협의 (분기별 개최 원칙)

* (실무 사항) ①FTZ 정책 협의회 안건의 사전 협의, ②FTZ 운영 및 제도에 관한 사항, ③각 부처 등에서 협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등

< 자유무역지역(FTZ) 협의회 구성 >

구분	현 행	변 경(안)
협의 기구	(없음)	FTZ 협의회 (정책, 실무)
운영 참여	산업부 ⇔ 국토부 ⇔ 해수부	산업부 + 국토부 + 해수부 + 관세청 지자체 등 * 안건 관련 부처(예 : 중기부) 등 참석 요청

2 FTZ 관리기관 조직정비 : 관리 중심 ⇒ 수출·투자유치 기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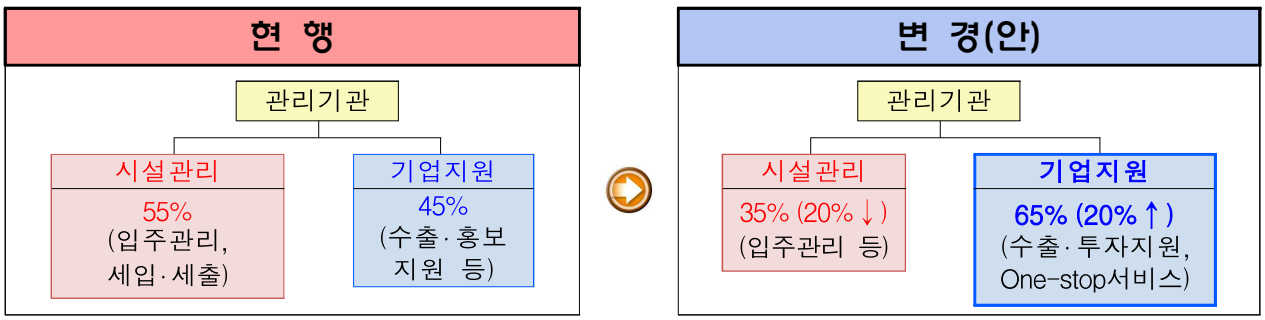
○ **(기업지원 중심 개편)** FTZ 관리원 기능을 **시설관리*** 위주에서 **수출 지원 및 투자유치를 위한 기업지원**** 기능 중심으로 정비

* (시설관리) 입주계약, 건축, 국유재산, 세입·세출, 물품관리, 서무, 안전관리

** (기업지원) 수출지원, 투자유치, R&D지원, One-Stop 서비스 지원, 기업애로지원 등

- **산단형** FTZ 관리원은 **'21년 1/4분기까지 조직진단 및 정비, 공항·항만형** 관리기관은 **'21년 上까지 자체 조직진단 추진**

< **(예시)** 산단형 자유무역지역(FTZ) 관리원 조직정비(안) >



3 성과평가를 통한 FTZ 고도화 및 내실화

○ **(FTZ 고도·내실화)** FTZ **성과평가 제도*를 바탕**으로 기존 FTZ의 **고도화 및 내실화** 추진

* '17년부터 성과평가 실시 / (평가항목) 수출, 투자유치, 입주율 성장세, 고용 등

- **(성과 우수지역) FTZ 추가 지정** 및 기업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 지원**을 통한 지역 **FTZ 활성화 및 고도화*** 추진

* FTZ 경쟁력강화사업 확대 배정, 성과 우수사례 확산, 노후시설 고도화, 포상 확대 등

- **(성과 부진지역)** 수출 및 입주율 등이 낮은 **저성과 FTZ**는 **맞춤형 내실화 대책** 마련·추진

* 성과부진 분석 및 정밀 조직진단 ⇒ 관리기관 조직 정비, One-Stop 지원 체계 구축 등

2-2 FTZ 규제 정비를 통한 경쟁력 강화

1 기업 성장 및 투자를 저해하는 FTZ 잔존 규제 정비

❶ **(농림축산물 입주제한 완화)** 현행 **입주제한 업종**으로 규정된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에 대해 **FTZ 입주를 허용**

- **(현황)** 공산품 제조·가공은 입주규제가 없으나, **농림축산물**(63개 양허 관세품목) **제조·가공업은 입주제한**(→ 국내 농가 보호·관세포탈 방지 취지)

⇒ **(문제점) 고부가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 등 **신규 투자 유치** 저해

- **(규제정비)** 현행 **입주제한업종으로 규정된 농림축산물**(63개 양허관세 품목)에 대하여 **입주허용***(법 개정, '21.上)

* (입주 조건) 재고관리 전산시스템, 보세사 채용 등 체계적 물품관리 시스템 구비 등

⇒ **(정비효과)** 규제개선 시 **유제품가공 업체 L社 등 4개 기업** 투자* 전망

* 입주희망(부산항, 광양항) 및 품목 : 탈지분유 등 유제품가공, 커피가공, 육류가공 등 (예상 투자액 약 960억원, 고용 약 360여명)

< 고부가 농림축산물 제조·가공 시장 현황 >

○ **(현황) 중국 등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농림축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된 **고부가 가공식품**(가정간편식, HMR) 등에 대한 시장 확대

* **H**ome **M**eal **R**eplacement 수요 추이(자료 : 글로벌 데이터 인텔리전스)
: (중국) ('12) 4.4조 → ('16) 6.4조, 47.5%↑ / (일본) ('16) 24.5조 → ('21) 35조, 22.9%↑



* (보관) 1.5배 → (로스팅) 3배 → (포장) 20배 부가가치 창출 추정(해양수산개발원)

❷ **(전자상거래 활성화)** FTZ내 **화물관리를 소량 분할·보관이 가능**하도록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화물관리 시스템**으로 **개선**

- **(현황)** 현재 **FTZ는 재고관리**를 **화물**(컨테이너) **단위로 보관·사용**토록 하고 **소량 분할·보관 불가** (→ 소규모 물품 빼돌리기 등 불법행위 방지 취지)

⇒ **(문제점)** 일 1만 건 이상의 **개인 소비재 상품 취급**을 위해서는 **소량 분할·보관이 필요**하나 법령 미비로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어려움**

* C社 등 글로벌 물류기업은 아시아 시장의 전자상거래 물류 신속화를 위하여 FTZ내 국제물류배송센터(GDC) 설립을 추진, 전자상거래 재고관리 및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

- **(규제정비)** 화물(컨테이너)의 소규모 분할·병합 보관 등 **화물 재고관리 간소화를 허용** (법 개정, '21.上)

❸ **(신속통관 제도 등 특례도입)** 현재 FTZ에 적용되지 않는 **관세법 상 특례제도** 등이 **FTZ에 적용되도록 근거규정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FTZ 법령 미비로 **관세법상 특례제도*** 등이 **FTZ에 미적용****되고 있어 입주기업의 **수출입 운영에 어려움**

* (특례제도) 입항전 수입신고, 신속통관(AEO), 탁송물품 특별통관, 제조업체 통관특례 등

** FTZ 법 제3조 : FTZ에서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세법 미적용

- **(규제정비)** 법 개정을 통하여 **관세법상 필수 절차 및 특례 사항이 FTZ에 적용**되도록 하여 입주기업의 **수출입 애로 해소** (법 개정, '21.上)

❹ **(FTZ 內 물류흐름 개선)** FTZ에 **장기간 방치된 화물**에 대한 **매각 요건을 완화**하여 **FTZ 물류흐름**을 효과적으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장기 방치 물품의 발생으로 FTZ내 물류업자, 창고업자의 피해* 뿐만 아니라 **국내외 물류흐름에도 악영향**

* H社 등 물류기업은 일부 화주가 화물의 보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수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서 관리비 부담, 신규영업 방해 등 운영피해가 크다고 지속 건의

- **(규제정비)** 장기 방치 물품에 대한 매각처리 요건 완화로 **입주 물류기업의 피해 경감** 및 **FTZ내 물류흐름 개선** (법 개정, '21.上)

② 기업 성장 및 신사업 진출 지원을 위한 FTZ 규제 혁신

❶ **(규제접수·발굴)** 기업 활동 중 발생하는 **현장규제**(인·허가, 수출, 조달 등) 및 **유망 신산업 분야*** **규제** 접수·발굴 (Top down-Bottom up 조화)

* (예시) 지능형 모빌리티(자율차, 드론 등), 바이오헬스, 에너지 신산업 등

- **(전담 규제담당관 지정) FTZ관리원별 전담자 지정** 및 규제 접수·발굴, 규제 해결시까지 기업과 협조하여 **책임있는 규제개선 지원**

< FTZ 규제 개선·혁신 프로세스(안) >



❷ **(규제개선·혁신)** 일반규제는 **국무조정실**(규제개혁신문고) 협조, **신기술·신산업규제**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활용

- **(일반규제)** 규제 관련 **부처협의**(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 후 협의 곤란한 경우 국조실(규제개혁신문고)에 **규제 접수**(규제담당관 접수) 및 **해결**

- **(신기술·신산업규제)** 신기술 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규제샌드박스 신청**(규제담당관 협조) **및 규제개선** 시까지 책임있는 행정지원**

* **(기업의견)** 규제샌드박스 관련 행정부담이 크고, 조건이 엄격하여 사업성 확보 곤란

** 지방중기청(지역혁신 관련 규제개선), 접수기관(산업기술진흥원, 대한상의)과 지속 협력

< FTZ 입주기업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관련 부처 지원내용** >

① **(컨설팅지원)** 규제샌드박스 신청, 절차진행 및 사업화지원 관련 컨설팅 지원
* "FTZ 경쟁력 강화사업"('21년, 31.5억) 내 '수요맞춤형지원(규제샌드박스)' 활용

② **(기준개발지원)** 규제샌드박스 제품 중 기술·인증기준이 필요한 제품의 기준개발 지원
* 국표원 "규제샌드박스 융합신제품 인증기술개발 사업"('20.1월~, 매년 10~15개 규모)

③ **(사업화지원)** 실증특례비 및 보험료, 산업구조고도화자금 우대금리, 특허출원 우선심사 등

<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요 >

□ **(개념)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시도**가 가능토록 **규제를 면제·유예**시켜 주는 **혁신의 실험장**

□ **(추진 체계) 국무조정실 중심 4개 부처 협업체계로 운영**

○ **(국무조정실)** 규제 샌드박스 **제도 총괄** 및 **관계부처 TF*** 운영

* 국무조정실장 주재「관계차관회의」, 규제조정실장 주재「관계부처 실무 TF」

○ **(제도 주관부처) 분야별 4개 부처**가 **규제 샌드박스 운영*** 및 규제 소관 부처와 공동으로 **사후관리·평가** 추진

* 산업부(산업융합), 과기정통부(ICT융합), 중기부(지역혁신), 금융위(금융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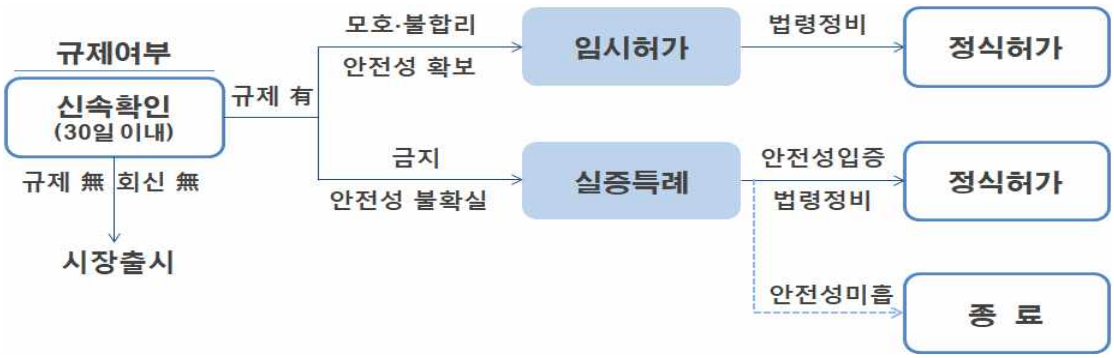
□ **(주요내용) 국민의 생명·안전 등 공익적 가치**를 균형있게 고려하는 가운데, **신기술·신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적인 규제특례 제도** 도입

① **규제특례 3종 세트 : 규제 신속확인❶, 임시허가❷, 실증특례❸** 도입

❶ 규제 존재 여부·내용 문의 → 30일 이내 미회신시 '규제없음' 간주
❷ 법령 모호·불합리 시 → 기존 규제 적용 없이 조기 출시
❸ 법령 모호·불합리·금지 시 → 기존 규제 적용 없이 테스트 허용

※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기업에 실증비용 및 보험료 지원 병행

< 규제 샌드박스 운영 절차 >



② **안전 3종 세트 : 생명·안전 검토❶, 문제 즉시대응❷, 배상책임 강화❸**

❶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우려 시 규제특례 제한
❷ 규제특례 적용 중 문제 발생·예상 시 특례 취소
❸ 사전 책임보험 가입, 고의·과실 입증책임 전환(피해자 → 사업자)

3 성과 중심의 맞춤형 수출·혁신 인프라 구축 지원

◈ 입주기업의 **수출·혁신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FTZ 혁신 생태계 기반**(❶온·오프라인 인프라 구축, ❷수출·혁신지원역량 총동원) **구축**

3-1 FTZ 인프라 등 성장 지원체계 조성

1 FTZ 지원(혁신지원센터, 스마트물류센터) 인프라 구축

❶ **(FTZ 혁신지원센터)** 입주기업 종합 지원, **지역 FTZ 경쟁력 제고 및 혁신인프라*** **역할** 수행을 위한 「**FTZ 스마트혁신지원센터**」 구축

* 기업 경쟁력 강화, 기업간 네트워킹 구심점 역할, 첨단기업(R&D연구소) 유인 기대

< FTZ 혁신지원센터 >



○ 규 모 : 지상 5층(연면적 4,040㎡) ※ '21.2월 완공예정
○ 목 적 : R&D, 컨설팅, 교육, 홍보판매 기능 등을 종합지원
○ 위 치 : 경남 창원시 무역로 24 (마산 FTZ 內)

❷ **(FTZ 스마트물류센터)** 전자상거래 등 물류수요의 변화에 따라 **첨단 디지털 물류기술*이** 적용된 「**FTZ 공동 스마트물류센터**」 구축

* Robotics, 빅데이터, IoT, Digital Twin(가상현실을 재현한 시뮬레이션) 등 물류기술

-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에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부산항 FTZ 內) **구축·조성**

2 기술혁신·K-서비스 기업 입주지원을 위한 첨단 인프라 구축

○ **(표준공장 확대)** 지역 **전략·중점 유치업종** 및 **기술혁신·K-서비스 기업*** 등의 **입주수요 대응**을 위한 **첨단 표준공장 구축**

* 콘텐츠, 바이오, 디지털서비스 및 기술혁신형 연구소 기업 등 첨단 기술기반 기업

< (참고) 울산 FTZ 內 표준공장('15년 완공) >



○ 개 념 : 생산시설만 갖추면 즉시입주 가능한 아파트형 공장

○ 면 적 : 총 32,227m²(경공업동 : 27,907m², 중공업동 : 8,319m²)

○ 입 주 : 13社(80%) (중공업동 5社(100%), 경공업동 8社(74%))

※ 업종 : 금속·철강제조 7社, 기계·자동차부품 5社, 도매 1社

- **(구축·확대 계획) 입주공급 여력이 부족**한 지역 FTZ를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표준공장 구축** 추진*

* 지역의 수요에 맞추어 지자체,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구축 추진

< 산단형 FTZ 內 표준공장 입주공간 공급 여력 ('20.6월) >

구 분		합계	동해	군산	대불	율촌	김제	울산	마산
공급 여력	면적 (천㎡)	**101.5**	10.2	2	9.6	3.2	6.7	7.2	62.6
	업체수 (개)	**45**	1	1	3	3	3	4	30

3 언택트(Untact) 산업 활동에 대응한 FTZ 온라인 인프라 구축

○ **(통합 홈페이지 구축) 국민**(입주기업)**이 중심**되고, **국민**(입주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FTZ 온라인 통합 플랫폼**」**으로 재구축**

* 산업부정보시스템구축 내 "FTZ 통합 홈페이지" 구축('21)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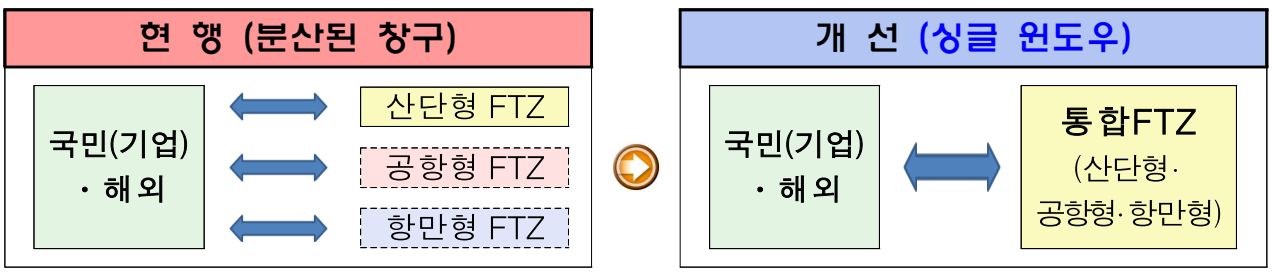
- **(현황 및 문제점)** ❶부처별로 홈페이지가 **개별 운영***되어 **통합 정보의 확인이 어렵고,** ❷**입주기업 및 생산품 관련 실효적인 정보 미제공**

* 산단형 FTZ는 통합 홈페이지 운영 / 공항·항만형 FTZ는 관리기관별 개별 운영

- **(통합 플랫폼 구축)** ❶개별 시스템을 통합한 '**싱글 윈도우**(Single-Window)' 구현, ❷**FTZ 및 입주기업**(생산품) **정보 통합 제공***(국문·영문 플랫폼 운영)

* 언택트(Untact) 트랜드에 맞추어 해외에서 온라인을 통해 입주기업 컨택 가능토록 설계

< FTZ 온라인 통합 플랫폼 구축 (안) >



3-2 입주기업 수출·혁신 역량 강화 지원

1 입주기업 FTZ 수출역량 강화 지원

❶ **(수출 지원 역량 총동원)** 입주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하여 **범부처 연계 수출종합 패키지 지원** 등 **최적의 수출지원 프로그램 제공**

- **(지역수출기관연계)** 바이어 발굴,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무역사절단·전시회**(전면 온라인化) 등 **지자체·지역 수출 유관기관과 연계*** **지원**

  * 지역FTZ관리원·지자체·KOTRA·중진공·무역협회 등과 협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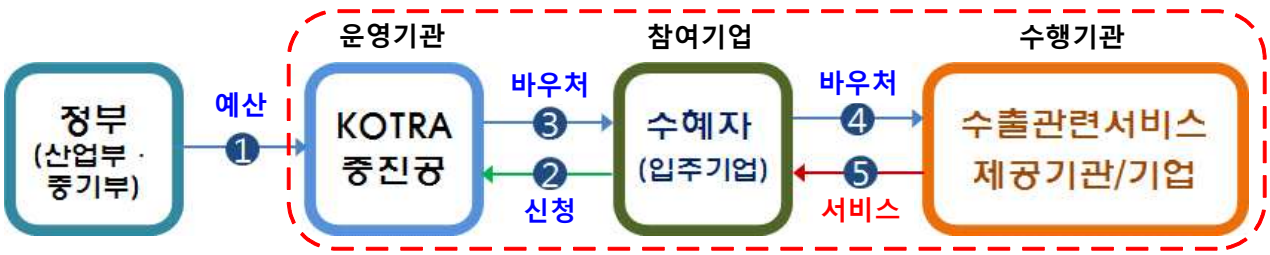
- **(수출패키지지원)** 신산업분야, 수출 초보 중소기업 대상 **기업 심층 진단 ~ 수출 전 과정**을 지원하는 **수출종합 패키지**(Package) **지원***

  * "FTZ 경쟁력 강화사업"('21년, 31.5억) 내 '수요맞춤 기업지원' 활용 : ❶기업 심층 진단(컨설팅) → ❷사업화(컨설팅, 시제품제작, 인증 등) → ❸수출(판로개척, 홍보 등) 지원

⇒ **(수출바우처지원)** 입주기업 심층진단(컨설팅) 후 기업 맞춤형 **"수출바우처사업"*의 해외마케팅 활용을 통한 수출 촉진 및 역량 강화**

  * **(서비스 메뉴)** 컨설팅, 통번역, 교육, 시험인증, 환보험, 홍보/광고, 전시회, 디자인개발 등

< FTZ 입주기업 수출바우처 지원(안) >



❷ **(온라인 언택트 수출 지원)** 오프라인 방식을 넘어 해외시장 개척이 가능하도록 **언택트**(Untact) **시장진출** 역량강화 지원(FTZ 관리기관 협력)

- **(글로벌 전자상거래 진출 지원)** 아마존 등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 및 **온라인 콘텐츠*** **제작** 지원 연계

  * AR, VR 활용, 브랜디드 마케팅을 통한 특성화 콘텐츠 제작 지원중(코트라·중진공)

- **(공공 온라인 플랫폼 지원)**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범부처 프리미엄 온라인 거래 플랫폼*** 등록 연계

* 해외바이어 대상 상품홍보(온라인전시관 운영) 및 온라인 연결 지원하는 수출지원 플랫폼 (바이코리아 : www.buykorea.org, 고비즈코리아 : www.gobizkorea.com)

2 입주기업 FTZ 혁신역량 강화 지원

❶ **(제조혁신을 통한 혁신역량 지원)** 기업의 **혁신역량**(생산성 및 품질 제고) **강화**를 위해 **지역 FTZ의 스마트공장 확산** 지원

- **(스마트공장 활성화 거점)** 입주기업 업종 및 밀집도 등을 고려, **6개*** 권역을 **자유무역지역 內 스마트공장 활성화 거점**으로 지원

* 총 6개 : 중부권(인천공항, 평택·당진항), 호남권(대불, 김제), 영남권(마산, 울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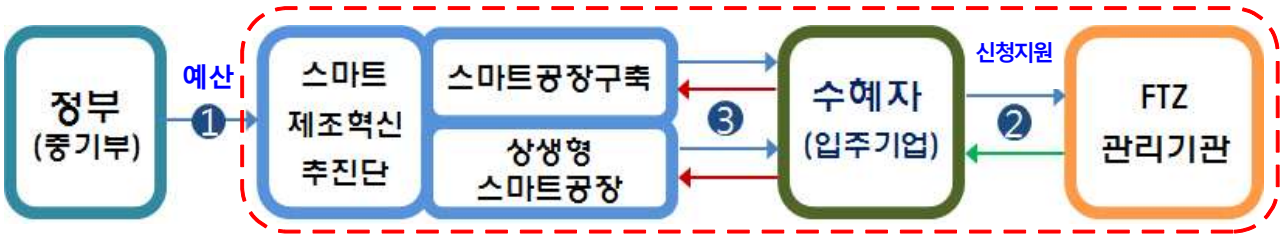
▸ **(스마트공장 확산)** 활성화 거점을 중심으로 **13개 지역의 FTZ 입주 중소기업**('20.3월, 1,029개)에 **스마트 공장 확산·구축***

* 확산 계획(총 1,029개사) : ('21~'22) 400개사 → ('23~'24) 400개사 → ('25) 229개사

▸ **(스마트공장 고도화)** 입주기업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6개 활성화 거점에 고도화된 선도형 스마트 공장**(예 : 클러스터형 스마트공장) **구축***

* 스마트공장 지원('21) : (구축) 7천만원, (선도형) 4억원

< 스마트공장 지원(안) >



* 지자체, FTZ 및 스마트공장 관리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확산 지원

❷ **(혁신역량 강화 프로그램)** FTZ 입주기업(첨단·유턴·수출유망기업)에 **특화된 혁신역량 프로그램**(즉시 사업화 지원 등) 발굴·지원

- **(사업화 지원)** FTZ 입주기업 수요 분석을 통해 **기술지원, 마케팅 등 사업화 촉진 서비스** 제공, **해외인증, 특허 등 혁신 바우처** 연계 지원

- **(즉시사업화 지원 강화) 신산업·수출유망기업** 대상, 기업·지역 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즉시 사업화가 필요한 과제*** 지원

* "FTZ 경쟁력 강화사업"('21년, 31.5억) 내 '즉시 사업화 사업' 강화 : 즉시(1년 이내) 사업화 가능한 '현장맞춤형', '이전기술사업화' 과제 등 지원

❸ (양질의 일자리·고용지원) 신산업·첨단산업 분야 등 **입주기업 수요에 대응**하여 **전문인력 양성·교육 및 고용**(청년일자리) 지원

- **(전문인력 양성·교육) FTZ 인근 지역 대학** 등에 입주기업이 필요로 하는 **관련 학과에 교육과정 개설**, 졸업 후 **기업·연구소 취업 연계**

* "FTZ 경쟁력 강화사업"('21년, 31.5억) 내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활용 : 지역 대학 상경계 학과(무역, 통상 등)에 FTZ 강좌 개설, 기업현장에 필요한 실무인력 양성·연계

- **(청년일자리 지원)** 시·도 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하여 **권역별 공동 입주기업 일자리 박람회 참가** 등 **청년 구직자 대상 취업정보 제공***

* 온·오프라인 병행 : "FTZ 통합 홈페이지"('21) 구축 時 입주기업 취업정보 상세 제공

❹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기업성장 과정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시책**(입주, 기술, 시장, 인력, 자금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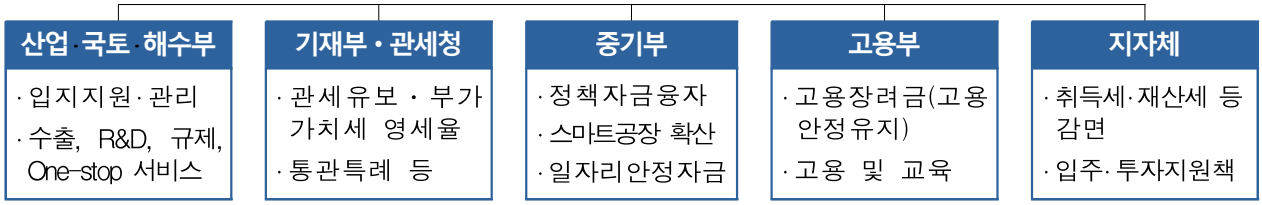
- **(지원기관 연계 강화)** 지역 FTZ별 **유관기관*** **간 협력채널 구축** 및 **관리기관에 기업별 전담자 지정**을 통한 현장 밀착형 지원체계 구축

* (기술) TP 등 (시장) KOTRA, 무역협회, (금융) 무보, 중진공, 산은, (인력) 대학 등

- **(원스톱 서비스 체계)**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영업활동 및 혁신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 연계 지원**을 **원스톱化***

* "FTZ 통합 홈페이지"('21) 활용 : '입주'부터 각종 '지원사업'까지 원스톱 신청이 가능하도록 통합지원사이트 구축·운영

< FTZ 입주기업에 대한 정부·지자체 지원 제도 >



Ⅴ. 향후 계획

추진 과제	소관부처	추진일정
1. 고용창출 및 지역 경제를 선도할 혁신 생태계 조성		
1-1. FTZ를 지역 주력산업 핵심 거점화		
1-1-1. 핵심 주력산업 연계·유치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지자체	'21~
1-1-2. 핵심 주력산업 유치 부지 확보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지자체	'21~
1-1-3. 투자유치 지원체계 구축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지자체	'21~
1-1-4. 투자유치 대상 산업·기업 발굴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지자체	'21~
1-1-5. 투자유치 홍보 다양화	산업부	'21~
1-2. FTZ 인센티브 강화		
1-2-1. 취득·재산세 등 감면 추진	지자체, 행안부	'21~
1-2-2. 현금(보조금) 지급 우대	산업부	'21~
1-2-3. FTZ 입주자격 완화	산업부	'21~
1-2-4. FTZ 임대료 감면	산업부, 기재부	'21~
2. FTZ 제도 개편을 통한 성장 지원체계 구축		
2-1. FTZ 지원체계 정비·고도화		
2-1-1. FTZ 협의회 운영	산업부	'21~
2-1-2. FTZ 관리기관 조직 정비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21~
2-1-3. FTZ 고도·내실화	산업부	'21~

추진 과제	소관부처	추진일정
2-2. FTZ 규제정비		
2-2-1.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 입주제한 완화	산업부	'21~
2-2-2. 화물 재고관리 간소화 도입	산업부, 관세청	'21~
2-2-3. 신속통관 제도 등 특례 도입	산업부, 관세청	'21~
2-2-4. 장기 방치 화물 매각요건 완화	산업부, 관세청	'21~
2-2-5. 규제개선 시스템 정비(규제담당관 지정 등)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21~
3. FTZ 수출·혁신 인프라 구축		
3-1. FTZ 인프라 등 지원체계 조성		
3-1-1. FTZ 지원 인프라 구축	산업부, 해수부	'21~
3-1-2. FTZ 표준공장 확대	산업부	'22~
3-1-3. FTZ 통합 홈페이지 구축	산업부	'21~
3-2. 입주기업 수출·혁신 역량 강화		
3-2-1. 지역 수출 유관기관 연계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지자체	'21~
3-2-2. 수출바우처 패키지 연계 지원	산업부, 중기부, 국토부, 해수부	'21~
3-2-3. 온라인 언택트 수출 지원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21~
3-2-4. FTZ 스마트공장 확산 지원	중기부,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21~
3-2-5. 즉시 사업화 사업	산업부	'21~
3-2-6. 대학 FTZ 강좌 지원	산업부	'21~
3-2-7.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	산업부	'21~